

## 청소년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추 병 완\*

- I. 서 론
- II.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 III. 새로운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
- IV. 청소년 통일교육의 당면 과제
- V. 결 론

### I. 서 론

통일은 우리 시대의 실제적인 관심사인 동시에 반드시 우리가 이룩하여야 할 역사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은 통일의 주체이며 당사자인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내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심각하게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통일의 대상인 북한의 정책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어, 단순한 감상적 차원이나 일회적인 말로써 형언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다행히도 오늘날 국제사회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오는 긴장감이 완화되고 평화와 화해의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국가간에 새로운 경제적 협력과 경쟁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동구 국가들에 이은 소련 공산주의의 몰락과 전세계적인 군비축소 현상은 인류의 염원인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구상에서 최후의 냉전지대로 남아있던 한반도에도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우리 나라의 비핵화 및 평화구축 선언, 북한의 핵안전협정에의 서명, 남북한 직교역 증대, 남북합의서 교환 및 발효 등을 계기로 본격적인 통일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sup>1)</sup> 이와 더불어 통일을 위한 또는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에 관한 논의도 최근에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교육은 통일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 못한다. 그러나 교육의 용용이 통일의 크나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제도상의 혹은 정책상의 통일 노력에 병행하여 통일교육에도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에 놓

\*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1) 줄고(1992.3), "민족공동체 윤리-도덕의 실천과제", 북한, 북한연구소, p.87.

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통일교육을 중시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통일이라는 당위적 과제 해결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고통과 갈등, 혼란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즉 통일교육의 목적은 통일에 대한 합리적 태도와 통일문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 기능을 배양하고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양하여 통일을 앞당김과 동시에 통일 이후에 나타나게 될 문화지체 현상을 최소화하여 단순한 지리상의 통일이 아닌 참다운 정신문명의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한민족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모색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sup>2)</sup> 이미 독일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제도상의 통일에 병행하는 정신문화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독일인들 스스로가 마음의 통일을 이룩하기까지는 10~2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문화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sup>3)</sup> 그러므로 통일교육이 정책상의 뒷전에 놓여 있는 통일논의와 통일접근은 비현실적이며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언젠가 이룩될 통일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일 통일교육의 현장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비방하고 적대시하는 논리가 자

행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반통일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sup>4)</sup>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을 돌이켜보면, 통일 후계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통일교육이 급변하는 통일환경의 동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채, 늘 시대 변화를 뒤쫓아가는 일변도의 시대착오적인 통일교육 즉 통일교육의 지체현상 *lag phenomenon of the unification education*이 계속되고 있다. 나아가 통일교육이 명확한 교육학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정책상의 고려에 의해 혹은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 *the principle of political selectivity*에 의해 실시됨으로써, 이론적 체계나 교육내용 및 방법상의 일관됨을 지니지 못한 채 그때 그때의 정치적 목표 구현에 이용당하는 우를 범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통일에 대한 균형감각을 키워주기 보다는 북한 체제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우리 체제의 우월성 논리만을 강조하는 체제경쟁적이고 아전인수적인 통일교육이 지속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주체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반통일적인 반민족적인 교육을 자행해 왔다.<sup>5)</sup> 즉 남북한 공히 통일문제를 자신의 안보문제와 상처되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안보문제에 종속되는 부차적인 것으로서 통일교육을 추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면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일을 달성할

2) 줄고(1991.9), "민족공동체 윤리의 정립",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p. 60.

3) 황성모(1991.3~4), "통일한국의 문화전망", 민족통일, 민족통일추진회, p.32.

4) 김신일(1991.1), "통일로 가는 교육의 방향", 새교육, 한국교육신문사, p. 43.

5) 사회과학원(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교육이론, 평양: 사회과학원, p. 149.

"새 세대들은 유치원과 학교 시절부터 혁명적으로 교양해야 하며, 그들이 자라서 열렬한 혁명가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사실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전이라는 일차적 목표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일을 추구할 수 있을까?’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어 왔던 것이다.<sup>6)</sup> 그러므로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일정책에 대한 신사고가 필요하듯이, 통일교육에 대한 신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통일교육도 민주화, 개방화, 평화의 추구라는 새로운 환경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행 청소년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상, 통일환경의 변화상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청소년들의 통일관, 학교교육에서의 통일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법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통일교육의 전개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새로이 모색된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에 근거하여 청소년 통일교육을 위한 당면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청소년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 1. 통일환경의 변화

오늘날 국제정세는 신데탕트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듯이 국가간의 이념적 대결보다는 평화

와 화해를 추구하면서 각기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적 경쟁과 대립의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의 구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7)</sup> 첫째, 냉전후기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창출되고 있는바, 미-소 데탕트의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관계의 탈이념화와 탈군사화의 경향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의 퇴조와 더불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책 수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지도력 행사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셋째, 국제관계의 중심이 ‘고위정치’에서 교역, 투자, 기술 이전 등 경제위주의 ‘하위정치’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국제관계는 소련에서의 공산주의의 붕괴, 소련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의 활발한 민주개혁, 군축의 급속한 추진, 여러 지역분쟁의 완화 내지 종식, 유엔의 평화유지 기능의 강화 등 냉전의 종식과 안정과 평화 및 협력관계의 발전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8)</sup> 이러한 국제질서의 구조적인 특성과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왔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상대적인 국력 신장과 적극적인 북방정책은 동북아의 삼각관계를 사실상 해체시키는 성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4강에 의한 묵시적인 교차승인 단계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제 통일문제가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 또는 통일문제의 한국화 단계로 변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오늘날 우리의 외적 통일환경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 통일문제의 직

6) 임동갑(1989), 평화통일 논리와 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1~72.

7) 유인택(1991. 여름), “최근의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한 관계”, 국제연구, 민주자유당 국제연구원, pp. 186~187.

8) 전정환(1991. 12), “냉전질서에서 평화질서로”,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p. 23.

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4강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남북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9)</sup>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크게 보아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할 수 있다.<sup>10)</sup> 첫째,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정책의 상반성을 초래한 이념과 체제의 차이 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외적 상황이 하나의 큰 물줄기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이제 진정한 민족사의 전개 방향은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통일민주국가의 건설에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둘째, 냉전후기시대의 새로운 국제정세의 흐름은 우리의 분단상황을 극복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도 종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련 및 동구 국가들의 개혁 및 개방의 바람은 북한의 폐쇄체제를 엄습해 오고 있다. 북한 사회의 개혁, 개방과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공영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민주화 및 민족주의, 경제적 자국이익주의의 추세도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중시하는 새 통일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고자 시도하였으며, 최근 남북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였다.<sup>11)</sup> 그러나 작금의 국제환경의 변화가 분명히 한반

도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북한 체제가 의미있는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한 냉전의 해소와 통일의 전망을 낙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 북한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시도하고 유엔에 가입, 핵 안전협정에 서명 등 외교정책에서만 조심스런 변화를 보이고 있을 뿐, 우리와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합의에는 선뜻 나서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북한의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사회에 일당 자유의 바람을 허용한다면 동구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 위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2)</sup> 더구나 남북한은 통일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서도, 통일의 주체에서부터 통일의 방법 그리고 통일의 형태 및 그 미래상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통일정책 전반에 걸쳐 각기 추구하는 목표와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유리한 통일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남북화해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통일교육은 바로 이러한 통일환경의 동태적인 성격을 있는 그대로 이해시키고, 통일은 남북한간의 평화 협력 및 화해의 과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을 대결과 증오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일문제를

9) 이병용(1991, 9~10),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비책", 민족통일, 민족통일추진회, p. 6.

10) 유인택, 앞 글, pp. 187~188.

11) 김승만(1992, 2), "몰타島에서 한반도 해빙기는 오는가", 북한, 북한연구소, p. 27.

12) 안병준(1991, 11), "국제환경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교육원보, 교육부, p. 15.

같이 숙고해 나아가갈 민족공동체의 또 다른 반쪽이기에 서로 화해하고 화합해야 할 선의의 동반자로 보도록 해야 한다. 둘째, 통일전후의 사회적인 혼란과 인식의 혼동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단순히 지리상의 혹은 체제상의 통합이 아닌 마음의 통일이기에 거기에는 상당한 고통과 희생이 따를 수도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혼란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셋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전망과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통합된 민족국가로서 동북아 및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함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 2. 청소년들의 통일관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통일교육에서는 청소년들의 의식구조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통일관을 추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북한 동포들에

대해 친근감을 갖고 있지 않다.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sup>13)</sup> 북한의 청소년들이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은 불과 5.8%인 반면에 대체로 혹은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65.8%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좋아하는 나라의 대상에서는 0.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나라의 대상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평가에서도 중고생의 4.3%만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95.7%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긍정적 평가 부분에는 '자주적이다' '동질감을 느낀다' '개방적이다' 등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 평가 부분에는 '비인간적이다' '모방적이다' '폐쇄적이다' '내부 갈등이 심하다' '독재-세습적이다' '이질적이다' '자유가 없다' '호전적이다' '적대적이다' '위장평화적이다' 등의 이념적 적대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4)</sup>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sup>15)</sup>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고교생이 69.8%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주민과 결혼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55.7%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학생도 17.4%나 차지하고 있어<sup>16)</sup> 우리의 청소년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 큰 호감을 지니고 있지 않음과 동시에 상당히 편향된 이념적 시각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현실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고,

13) 문화방송(1991), 91 MBC 청소년백서, p. 60.

14) 김정택, 오택섭(1986. 1~2), "한국청소년의 대북한관",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pp. 38~41.

15) 서울대 교육연구소(1989. 10), 한국인의 이념성향에 관한 조사연구, pp. 55~61.

16) 차유구(1990), 중고등학생들의 윤리관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35.

북한 주민의 생활상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sup>17)</sup> 현재 북한의 모습을 조사 대상의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적대국으로 생각하고 있어 민족의 이질화 현상의 심화와 함께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는 현실적인 면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교육의 내용을 상당히 학습한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바, 예를 들면 북한은 통일을 이루어야 할 동포 집단이라고 반응한 학생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8)</sup>

둘째,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통일외지는 매우 높으나 다소 감상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sup>19)</sup> 통일외지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주적 통일, 반공보다는 민주나 자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잘 살게 된다면 공산주의어도 괜찮다는 학생이 21.7%나 되고, 무력이나 폭력에 의해서라도 통일을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반응한 학생도 16.2%나 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가능하다는 응답

이 무려 44.83%에 이르고 있으며,<sup>20)</sup> 나아가 남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한 이해의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맹목적으로 통일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알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시켜 주는 교육이 절실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셋째,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현재의 통일 교육 방식이 매우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sup>21)</sup> 학교에서 실시하는 북한에 관한 교육내용이 실제 북한의 현실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47.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은 현재의 통일교육 내용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반공교육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23.2%에 이르고 있다.<sup>22)</sup> 또한 현재의 통일교육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불과 12%인 반면 너무 미흡하다는 의견은 77%에 이르고 있기도 하다.<sup>23)</sup> 한편 현재의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sup>24)</sup> 고교 운

17) 김동범(1987), 반공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7.

18) 홍성욱(1985), 고등학생의 통일안보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7.

19) 차우규, 앞 글, pp. 131~134.

20) 장경모(1985), 청소년의 통일외식 조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55.

21) 문화방송, 앞 책, p. 61.

22) 노병철(1990),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 종합분석자료", 도덕국민윤리과교육, 한국도덕국민윤리과교육학회, 제1호, p. 368.

23) 이규래(1991),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 한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제20호, p. 70.

이 연구는 학생 탐구대회 최우수작으로서, 학생들이 느끼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학생의 입장에서 조사한 것이니 만큼, 성인에 의해 조사된 타연구에 비해 훨씬 반응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김계만, 통일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p. 43~45.에 의하면, 통일교육에 매우 만족하는 학생은 불과 12.7%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24) 김연주(1990), "통일전망과 대학교육의 중요성: 교육심리학적 접근", 교육발전 논총, 충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Vol. 12, p. 70.

리교육에서 강조되어 온 통일교육의 목표들 중 통일에 대한 긍정적 합리적 태도 함양 및 노력할 점 탐색이라는 목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통일의 위협요소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간 수준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배웠던 고등학교의 통일교육이 민족통일성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진취적이며 적극성을 띤 것을 바라고 있으며, 안보 위주의 수세적 교육에는 그다지 찬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 또한 통일교육의 내용적인 면에서 '현실을 지나치게 왜곡하고 있다', '지나치게 이념면에 치중되어 있다', '통일의지 형성면이 부족하다', '세계정세에 지나치게 뒤진 내용이다'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사 대상의 총 69.5%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학부모들 또한 통일교육의 내용을 개선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5)</sup> 더욱이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지식 획득의 원천으로 선생님이나 교과서에 비해 매스 미디어를 가장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도<sup>26)</sup> 학교 통일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넷째,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sup>27)</sup>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학생이 조사 대상의 5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통일은 어렵지만 상호공존하며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라는 반응은 52.2%에 달하고 있으며, 평화적 통일의 전망은 부정적이라는 반응도 2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up>28)</sup>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sup>29)</sup> 통일의 전망에 대해 중학생의 47.7%, 고교생의 28.9%만이 가능할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통일의 저해 요인으로는 사상적 대립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통일의 열쇠는 남한의 율등한 경제 성장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통일교육의 내용을 보다 많이 학습한 고교생의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바<sup>30)</sup>, 그간의 통일교육이 오히려 분단지향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 3. 현행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학교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국가안보교육, 국민정신교육, 민주시민교육, 반공정신교육, 승공교육,

25) 신순철(1990), 통일에 대한 인식태도와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1.

26) 홍성욱(1985), 고등학생의 통일안보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9.

장경모(1985), 청소년의 통일의식 조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57.

27) 김복희(1988), 한국학생의 국가의식에 관한 기초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8~69.

28) 이종명(1989),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8.

29) 이상수, 청소년기의 통일안보교육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 iv.

30) 남태욱(1986. 4), 고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통일문제, 국토통일원, 제24집 pp. 101~105.

통일안보교육, 지공교육 등등의 다양하고도 전통적인 명칭 아래 통일교육을 실시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오히려 분단고착화 교육 혹은 지나치게 수세적인 안보논리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지금도 통일교육이 반공교육의 명칭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sup>31)</sup> 분단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남북한에서 시도되어 온 통일교육의 실상을 살펴보면 그것은 더욱 분명해진다.<sup>32)</sup>

제1기('45~'50년대초)는 남북한이 각기 민족적 민족교육과 공산주의 모방기로 분류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면에서는 각기 제시된 이념에 비해 내용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일종의 교육 준비단계로 평가될 수 있다.

제2기('50~'60년대초)는 우리의 민주시민교육과 북한의 계급교양이 강조, 대립되는 시기이다. 우리는 도의교육, 도덕교육을 국정 교과서로 지정하여 반공교육을 강화한 때이며 북한은 계급교양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한 때이다.

제3기('60~'70년대초)는 우리가 민주교육에서 민족주의 교육으로 전환한 시기로서 민족주체성과 국력 배양을 강조하였고, 북한은 혁명전통 교양과 김일성 유일사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주체' 확립을 시도하였다.

제4기('70~'79년)는 국민윤리교육이 강조되는 등 우리의 민족주의 교육이 더욱 체계화된 시기이며,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통일안보교육 지침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신격화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교육 테제'를 발표하였다.

제5기('80~'87년)는 우리가 국민정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강조한 반면에 북한은 권력 세습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 때이다.

제6기('88~현재)는 우리가 통일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제5차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기존의 수세적 통일교육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경주함에 비하여, 북한은 김정일 우상화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세습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는 실정이다.<sup>33)</sup>

요컨대, 남북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단 이후 공히 냉전논리와 대결논리에 입각한 상호 불신과 부정, 공격 일변도의 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유, 민주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북한은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상호 대립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증전의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냉철한 비평적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종래의 통일교육

31) 정석홍(1990.11), "통일에 대비한 교육체제의 모색", 수도교육,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p. 11.

32)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논문을 참조 바람.

김경용(1986.9), "통일-이념교육의 진단과 새로운 방향 검토", 국민정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임영철(1985), 한국 국민정신교육의 사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재봉(1991), 한국 정치교육 발달의 체계적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3) 최근 북한은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과 어린 시절" 등의 교과를 통하여 김정일 우상화 교육을 대폭 강화하였다. 서울특별시 초중등교과교육연구회 편(1991), 남북한 교육내용 비교분석, p. 27.

교육신문, 1992. 1. 1일자, 3면 참조바람.

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통일교육의 명확한 지침이나 계획,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지도방법, 평가 그리고 통일교육의 지원관리체제 등이 일관된 패러다임에 의해 실시되지 못하고 그때 그때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는 임기응변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교육부와 통일원이 선정한 통일교육의 목표가 있어 왔지만, 그것 또한 통일문제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교육 또는 통일에 대비한 목표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을 뿐, 통일 이후의 국가의 모습이나 한민족공동체의 나아갈 길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내용까지는 다루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민족공동체의 이념과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이 밀도있게 유기적으로 학습되는 기회가 거의 배제된 채<sup>34)</sup> 통일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나아가 민족동질성 회복의 중요성만 맹목적으로 부각시키는 폐쇄적인 성격을 띠어 온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은 범교과적, 교과통합적, 가치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과나 국민윤리과 혹은 사회과나 국사과의 특정 과목에만 편중되어 실시됨으로써 기대하는 만족한 성과를 가져 오기에는 애초부터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나아가 통일교육 내용을 다루는 특정 교과들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대부분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에 집중되어 있어 학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나 다루어지고,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대부분의 학습평가가 종료되는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어 시험에 다루어지는 것

에만 민감해져 있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더구나 국·영·수 위주의 주지교과만이 파행적으로 중시되는 현재의 교육풍토에서 도덕과나 사회과가 학생들에게 단순한 암기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도 통일교육의 성과가 미진한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게 사실이다. 분단국의 현실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교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인 입시제도가 노정한 주지교과 위주의 학교교육 풍토 속에서 통일교육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은 논리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종래의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감상주의적이었는데 문제가 있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통일이여 오라'는 노래를 목이 쉬도록 부르게 하고, '괴뢰'라는 뜻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북한 괴뢰 도당을 몰아내자'는 내용을 각종의 글짓기, 포스터, 웅변대회, 이야기대회 등을 통해 되풀이하게 하였다.<sup>35)</sup> 또 학교의 빈 교실 하나를 개조하여 반공교육실을 만들고 북한의 각종 만행과 도발상을 전시해 놓고 전교생이 관람하게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통일교육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유발을 하지 못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만을 심어줌으로써 반통일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학교 고학년 이상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기도 사람사는 곳인데 설마 그럴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수업내용에 대해 담당교사를 불신하는 풍조가

34) 최인화(1989), "민족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전개방향", 교원교육, 한국 교원대학교, 제5권 제1호, p.159.

35) 성선정(1990.봄호), "통일지향의 민족교육 방향모색", 사학, p. 25.

지 생겨날 소지가 다분히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통일에 대한 합리적 사고 그리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문제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민주사회적 기능들이 도외시된 채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오히려 참다운 민족공동체의식의 형성에 장애가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종래의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주된 내용은 우리의 통일정책, 안보문제, 북한의 실상 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sup>36)</sup>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상 교과서에는 새 정부의 통일정책과 업적이 장황하게 기술되고 학생들은 이를 무조건 암기해야만 했다. 그러다보니 담당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정부의 홍보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는 많은 교사들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가져다 주었다. 즉 교과서적으로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양심에 저촉되고, 그렇다고 진실을 얘기하자니 실정법에 저촉됨으로써 우리의 통일교육은 가르치는 담당 교사마저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급기야 교사들의 수업 접근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이를 테면, 보수성과 급진성의 대립), 이에 따라 배우는 학생들의 가치관만 혼란시키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또한 우리의 통일정책은 무조건 옳고 북한의 정책이나 실상은 무조건 나쁘고 잘못되었다는 방식의 우월성 논리는 민족동질성의 회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질화를 부채질하는 통일교육으로 전락하게 하였다. 도름지기 통일교육은 반세기에 걸쳐 누

적된 남북한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통일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참다운 민족화합과 민족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하게 함은 물론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도록하는 진취적이고도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교육은 편협한 냉전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폐쇄적이고도 소극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넷째, 통일교육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는 현행 교과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경우 남북분단의 국제적 요인 및 국내적 요인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남북분단이 강대국의 한반도 점령 정책으로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기술하고 있어서, 오히려 민족의 자주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분단의 국내적 요인으로 통일역량의 부족과 민족 내부의 분열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주체적인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소의 편의주의에 의하여 졸속하게 만들어진 38선 설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마치 남북분단이 신탁통치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분단 과정에서 신탁통치에 대한 내용만을 부각시킨 것은 오히려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의 민족의 분열상 그리고 신탁통치안 결정 이전의 미군정의 남한 통치 방침이라든가 건준, 인민공화국, 한민당 결성 등에 대한 설

36) 정석홍, 앞 글, p.11.

명이 배제된 것은 분단 과정에 대한 올바른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공식으로 승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상 엄밀하게 살펴보면, 유엔 결의안이 교과서에 기술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분명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즉 결의안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전역에 걸친 全韓의 정부라고 선언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피했으나 또 대한민국이 전한적 정부가 아니라고 특별히 선언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결의안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규정했다고 제시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또한 통일 교육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함은 특히 ‘북한의 실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의 현실 가운데 김일성 개인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의 실상을 제시할 때는 마땅히 북한의 지도층과 주민들을 구별해야 하고, 통제된 국민들간에도 상당한 사회적 일탈이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해야지, 마치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로보트와 같은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해서는 안된다. 또한 ‘북한의 언어생활’에서는 북한이 호전적이고 투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외래어의 이상한 표기법(예를 들어 트랙터를 북한에서 ‘뜨락뜨르’로 표기하는 것), 우리와 의미가 다른 용어들만을 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의 기준에서만 기술한 것이기에 객관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우리 말 표기가 가능한 용어들마저도 무분별하게 외래어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몰주체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언어에 관한 한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주체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긍정적 요소는 배제하고 부정적 측면만 제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만일 북한 언어생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언어생활의 문제점도 간헐 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과서에 제시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사진 자료들의 대부분이 60~70년대의 오래되고 낡은 모습만을 담고 있어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37)</sup> 이렇듯 북한을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인 사회로 본다든지 또는 북한 지도층이 요구하는 주장과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는 점, 북한의 사회제도나 생활방식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은<sup>38)</sup> 통일교육의 객관성을 저해함은 물론 오히려 민족 이질감을 부추기는 것이므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학년 교과서의 경우에는 ‘통일의 장애요인’과 통일의 촉진요인’이 제시되어 있는데, 통일

37) 예를 들어 1학년 교과서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 “북한주민들의 단조로운 복장” 등과 같은 오래되고 궁핍한 모습의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저해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2학년 교과서에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도한 신문들”이라는 사진을 제시하였는바, 본문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내용을 국내신문 보도내용만을 담은 사진을 통해 중복해서 제시해 놓고 있다. 이는 교과내용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홍보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입증해 준다.

38) 유석렬(1988),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교육방향”,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pp.10~20.

의 촉진요인보다는 통일의 장애요인이 너무 많이 제시되어 있어 이를 읽어 본 학생들은 마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 인상을 받기 쉽다. 특히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주변국들의 더욱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통일문제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촉진요인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의 제시와 설명이 첨가되어야 한다. 일례로 우리 민족의 통일 촉진요인에는 지리적 인접성, 단일민족, 문화적 동질성, 역사 의식, 기타 다양한 공통점들 등이 있다. 반면에 분열적인 요소는 두 개의 대립되는 외래 이데올로기뿐이며<sup>39)</sup> 이제는 북한이 지향하는 공산주의 이념이 전세계적으로 소멸해가고 있으니 만큼 통합적인 요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담당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소신과 자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교육함에 있어서는 난색을 표하는 것이 거의 관례화되어 있다. 물론 뜻있는 교사들에 의하여 소신있고 객관적인 통일교육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의 경우 통일교육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명료한 지도방법을 지니지 못한 채 구태의연한 사실 전달이나 개념 설명 방식으로 교육에 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각종 자료의 보급이나 연수활동의 부족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바, 통일교육의 지원 및 관리체계가 너무나도 허술하여 모든 것을 교사에게만 책임지우는 풍토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덧붙여 통일 문제에 대하여 담당교사들이 자신의 소신있는 명확한 판단이나 가치를 유보한 채<sup>40)</sup>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요약해주고 그 내용을 이해시켜 주는 차원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상상력,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방식과 논의 절차, 남북한의 현실에 대한 균형감각 나아가 통일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적 안목의 형성과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확신과 긍지의 형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III. 새로운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

이렇듯 분단시대의 통일교육은 분단고착화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sup>41)</sup> 통일교육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단순한 응급치료법으로 오인되거나 혹은 통일이 한반도에 있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수용되는 그릇된 분위기를 창출함으로써, 정태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띠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일교육은 동태적인 통일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님과 동시에 한민족 전체의 공동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삶의 질을 고양시켜

39) 허단(1989. 가을호), “한국의 통일 가능성과 통합민주주의 창조”, 국제연구, 민주정의당 국제연구소, pp. 115~117.

40) 이는 가치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교사의 입장을 명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북한 유엔 가입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 남북한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오랜 냉전구조를 탈피하게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분단 극복과 통일문제를 민족 내부의 문제로 처리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두 국가간의 국제적 문제로 만들게 되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균형있는 사고와 판단을 지님으로써 오히려 학생들에 대한 맹목적인 가치주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1) 박종화(1991. 1), “통일지향의 대학교육”,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통권 4호, p. 85.

줄 수 있는 통일이념에 대한 헌신몰입과 곧 도래할 통일국가에서 책임있는 민주시민적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고무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이며 체계성을 갖춘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일교육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1.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

새로운 통일교육은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은 선동적인 구호나 맹목적인 열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니다. 통일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지닌 민족공동체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분단현실을 극복하려는 민족의 대통합운동인 것이다.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또한 잘살기 위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통일의 거시적 과정은 감상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남북한 체제가 맞물려서 추진되는 상호작용적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메카니즘의 작동에는 지속적으로 갈등과 모순이 파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족통일의 거시적 과정의 성격과 이에 관련된 현실적 접근의 문제점을 규범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42)</sup> 그러므로 자라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올바른 통일관을 지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바른 통일관을 지닌 사람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① 조국분단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문제에 대하여 합리적 사고를 전개할 수 있다. ②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지님과 동시에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자기나름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에 대한 타인의 비판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③ 한반도 통일은 통일과 안보의 두 측면이 존재함을 알고 이에 대한 균형 감각을 지니고 있다. ④ 북한의 실상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이해의 틀을 지니고 있다. ⑤ 남북한 양체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상호 비교할 수 있다. ⑥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국제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긴장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⑦ 통일국가 형성의 과정 및 통일 이후 통일조국이 경험하게 될 많은 대내외적 도전들을 추론할 수 있다. ⑧ 민족공동체의 창조적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전망과 확신을 지니고 있다. ⑨ 통일국가의 완성과 발전을 위한 현실적 과제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이러한 통일관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일교육의 방법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상상력, 탐구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교수기법과 학습자료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방적이고 탐색적인 수업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상호작용을 통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경험의 확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 2. 민족공동체 윤리 의식을 형성하는 교육

새로운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 윤리의식을

42) 이용필(1992.1), "민족통합과 국민의식", 국제문제, 통권 257호, p. 33.

형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특히 새통일방안에서의 민족공동체는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교류-협력-개방을 통하여 사회-문화-경제부문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해가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공동체까지 만들어 통일을 이룬다는 통일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민족공동체라는 말은 통일의 중간단계인 동시에 우리가 이룩하려는 최종단계도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43)</sup> 또한 우리에게 있어 민족공동체는 한민족(韓民族)이라는 자아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민족 성원 각 개인에 의해 준수되는 하나의 규범체계라고도 할 수 있다.<sup>44)</sup> 그러므로 규범체계로서의 민족공동체는 각 성원들이 믿고 따라야 할 이념과 생활윤리를 제공하고 그것을 준수할 것을 각 성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이러한 규범을 지킬 때에만 민족공동체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단과 냉전구조에 의해 우리는 이러한 규범의 준수를 포기하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4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통일교육에서는 단순히 민족동질성 고양의 중요성만 언급했을 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내용은 배제되어 왔으며, 차제에 민족공동체 윤리의식의 형성을 통일교육의 한 방식으로 설정하는 근본

적인 이유도 바로 민족동질성 고양의 구체적인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단순히 분단이전 상태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한민족공동체의 창조적인 변형을 기약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교육 현장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규범체계로서의 민족공동체가 요구하는 행위 규범들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침으로써, 북한의 학생들을 적대감이 아닌 우정과 신뢰로 대하며, 그들을 편견과 차별없이 고유한 인격체로 존중함과 동시에 모든 문제를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 원칙의 틀 속에서 해결하려는 '새로운 한국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민족공동체의 윤리는 우리의 뿌리깊은 삶 속에 내재해 온 정신적 에토스와 서구의 시민 사회에서 발전되어 온 민주적 시민성 *democratic citizenship*이 우리 고유의 '한'의 현모지도에 의해 변증법적으로 조화된 것이며<sup>46)</sup> 구체적으로는 공존성, 통합성, 생존성, 발전성 등의 가치가 될 것이다.<sup>47)</sup> 통일교육에서 이러한 민족공동체의 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첫 단계인 문화공동체를 실현하려는 사려깊은 시도인 동시에 통일 이후의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한민족 전체 성원의 이상적인 행동양식을 실천해 나가려는

43) 김종립(1989), "민족공동체와 통일문제", 민족공동체와 통일문제, 국토통일원, p. 255.

44) J. Messner(1959), *Social Ethics*, St. Louis: B. Herder Book Co., p. 463.

사회적 형태로서의 국가는 단순히 법적 질서를 추상화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 준수되는 하나의 규범체계라고 보고 있는 바, 특히 단일민족국가인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논리가 민족공동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를 Durkheim의 표현을 빌어 설명하면, 우리에게 있어 민족공동체는 집합표상인 동시에 집합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45) 줄고(1991. 9), 앞 글, p. 61.

46) 앞 글, pp. 60~61.

47) 줄고(1992. 3), "민족공동체 윤리-도덕의 실천과제", 북한, 북한연구소, 통권 243호, pp. 87~99 참조.

창조적인 가치추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통일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교육

새로운 통일교육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확신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복고적인 통일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세계 속의 한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데 있는 것이니 만큼, 그러한 새로운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의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행위성향을 북돋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국가의 이상적인 모습들<sup>48)</sup>—예를 들면, 통일국가의 정치이념, 경제제도, 정의구현의 문제 등—과 더불어 향후 통일국가가 겪게 될 대내외적인 혼란과 시련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러한 고난을 주체적 문화 역량에 의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새로운 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의 통일국가가 당면하는 제반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기관리적 *crisis management* 기능과 태도를 신장시킴으로써 그들 스스로 통일조국의 미래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도덕적 훈련 *a moral*

*discipline*이 되어야 할 것이다.

### 4. 적극적인 평화의식을 개발하는 교육

새로운 통일교육은 적극적인 평화의식을 개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 한민족 공동체가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은 평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때의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평화학자들이 제시하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평화라고 할 수 있다. 갈통 J. Galtung에 의하면,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갈등과 분쟁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인간공동체를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그에게 있어서의 평화는 사랑과 인도주의에 기초를 둔 사회조화(社會調和)를 위한 열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바이츠제커 C.F.V. Weizsacker 역시 평화의 의미를 적극적인 의미로 파악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상태로 규정하였다. 그러한 삶의 조건들이란 ① 전쟁으로부터의 해방 ② 기근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③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④ 무지로부터의 해방 ⑤ 비참한 주거 생활로부터의 해방 ⑥ 자연환경의 보호 ⑦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를 의미한다.<sup>49)</sup>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지향하

48) 일례로 이영덕은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사회의 특징을 6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① 인간존엄성이 최대로 존중되는 사회 ②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회 ③ 모든 차이와 갈등과 대립이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 ④ 공동체의식이 충만한 구성원들의 협동과 봉사가 특징인 사회 ⑤ 도의로 다스려지는 사회 ⑥ 정신적 풍요에 더하여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사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영덕(1990), "민족통일성 교양을 위한 교육의 과제", 교육학연구, Vol. 28, pp. 12~13.

49) 그리스도교 철학연구소 편(1991), 현대사회와 평화, 서울:서광사, p. 255에서 재인용.

는 민족공동체의 이념은 한마디로 말해 ‘적극적인 평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민족의 자주성, 참된 평등주의의 구현, 정의와 민복주의의 구현, 세계애의 고양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50)</sup> 첫째, 민족의 자주성이란 한반도가 냉전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함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지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반만년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속에 개별인으로서의 자유와 공동체로서의 집단 목표 구현에 헌신진력하는 민족의 저력을 오늘에 되살려 서로 돕고 서로 신뢰하는 풍조를 조성, 완전한 민족적 자아를 구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로, 참된 평등주의의 구현이란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한 민족으로서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모든 성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와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부여받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세계를 물려주는 실천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로, 정의와 민복주의의 구현이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줄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 구현되고 모든 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가운데 전체 민족 성원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7천만 겨레의 삶의 질이 고양되며,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참된 정의의 원칙이 구현됨으로써 민족전체 성원들의 참다운 만남 *encounter*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끝으로 세계애 혹은 인류애의 고

양이란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성원으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구공동체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참여정신을 지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폐쇄적인 자민족중심주의가 아니라 ‘열린 민족주의 *open nationalism*’를 지향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교육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전체 구성원의 노력에 의하여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창조적 과정임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구조’로서의 평화를 다지기 위한 통일교육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민족공동체의 구성원 각자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내용으로서의 평화’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sup>51)</sup> 즉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냉전시대를 체험한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적색공포증을 통일 후계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비판적 성찰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주입하려는 전통적 교육 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내재된 평화의식을 개발하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과감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 5.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육

새로운 통일교육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안보 위주의 통일교육으로 인한 북한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의 결여, 지나친 국가사회적 교육목표 추구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된 對외국 관계에서의 편견, 그리고 국내적 차원의 지

50) 참고(1991.9.), 앞 글, pp. 62~63.

51) 박종화, 앞 글, p. 92.

역주의, 일상 생활 속에서의 각종 차별의식 등 넓고 깊은 휴머니티에 어긋나는 각종 편견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터 리프만 Walter Lippman에 따르면, 고정관념 *stereotype*은 실제의 세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상의 세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가상의 세계 *pseudo-environment*는 현대 사회에 있어 매스 미디어에 의해 주로 형성되어진다고 보았다.<sup>52)</sup> 이렇게 볼 때, 특히 북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고정관념 속에서 형성되어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란 우리에게 있어 가상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제의 세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상의 세계로서의 북한은 리프만이 얘기한 것처럼 매스 미디어에 의해 형성되어지기도 하나, 우리의 경우 그것보다는 반공교육에 의해 더욱 많이 학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학습을 통한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sup>53)</sup> 12세경에 대부분의 아동들은 인종이나 종교적 집단에 대한 완전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므로, 그 시기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최후 시기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편견 해소의 유일한 두 방식은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과 여러 다양한 차이점들 속의 공통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편견 해소 교육은 사실상 중학교 교육이 최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아

울러 편견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식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질성 속에서 동질성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교육 현실을 돌이켜보면, 비판적 사고의 함양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북한 공산정권의 모순이나 실상을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도는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비판적으로 사고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능동적인 입장에서 북한 정권이나 공산주의 이념의 오류를 비판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한 채, 오직 교사 또는 교과서가 요구하는 문제의 구조화된 위계에 부합하여 대답하도록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sup>54)</sup> 더욱이 민족의 동질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학습 내용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각종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편견 해소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 학습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통일교육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보편성의 원칙과 훌륭한 한국인을 육성한다는 특수성의 원칙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넓고 깊은 휴머니티를 지닌 인간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 6. 민주시민적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

새로운 통일교육은 민주시민적 자질을 육성

52) 김정택, *오백십, 앞 글*, p. 38.에서 재인용.

53) Frances M. Sonnenschein (April/May, 1988), "Countering Prejudiced Beliefs and Behaviors", *Social Education*, pp. 264~266.

54) 줄고(1988. 3), "이념교육 목표로서의 비판적 사고",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통권 51호, p. 121.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념적 체제를 달리 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해 온 사람들이 새롭고 신비스러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가운데 진실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생활규범이 체질화되어 있어야만 한다. 즉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어떤 방법과 수단에 의해 공통의 합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고, 통일의 과정이나 절차가 모든 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고양하는 것이 작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통일교육의 대상인 동시에 장차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통일국가 속에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은 통일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시민적 자질의 함양을 통해 통일로 향하는 제반 절차와 과정 속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제반 갈등과 고통들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교육에서는 생활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교육의 내용인 동시에 교육의 원리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IV. 청소년 통일교육의 당면 과제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 방향에 비추어 볼

때, 학교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통일교육의 접근법 정립

이제 우리는 통일교육에 있어 목표와 내용만 정해 놓으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론에서 탈피하여, 통일교육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1989년 반공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개선하면서 '통일-안보교육 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다.<sup>55)</sup> 그러나 同 지침서는 통일-안보교육의 기본 방향과 짝맞추는 지도 지침, 지도상의 유의점만을 제시했을 뿐 통일-안보교육이 어떠한 방법론적 접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최근 정부는 통일대비를 위한 새 교육지침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sup>56)</sup> 정부는 이 시안에서 남북이 본격적인 동반자 관계에 접어들었음을 강조하고, 북한은 이제 우리와 함께 살고(共生), 함께 번영하며(共榮), 함께 이로워야 할(共利) '3共關係'에 있는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내용의 적극적인 북한관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지침서에서도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과 지도 지침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룰 뿐, 정작 학교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통일교육의 방법론적 접근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통일교육이 그 나름대로의 사상성, 당위성, 현실성을 지닌 체계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

55) 문교부(1989), 통일-안보교육 지침서, pp.13~19 참조.

56) 한국일보, 1992. 3. 2일자. 1면 참조 바람.

보다도 통일교육의 접근법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통일교육의 접근법이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 단순한 지도 지침의 차원 이상의 것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및 평가를 포괄하는 하나의 분과학의 이론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접근법으로는 크게 보아 가치에 관한 학생들의 자발적 탐구 과정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가치탐구적 접근법, 사회화와 반사회화를 중시하는 민주시민교육적 접근법, 가치지향적이며 조작적인 성격을 중요시하는 정책과학적 접근법 등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법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통일교육에 활용되는 여러 접근법들은 반드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접근법들과 통일교육의 내용 영역을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그러한 구조화가 목적합리성과 가치합리성을 지닐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통일교육 지원-관리 체계의 활성화

청소년 통일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는 기대한 바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통일교육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담당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학교의 통일교육을 지원-관리해 주는 메카니즘 또한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통일연수의 내용 또한 교사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흡

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수의 기회마저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통일 관련 유관 단체나 기관에서 각종 교육자료를 보내오고 있기는 하지만 시의성을 상실한 내용이 대부분이거나 일방적인 정부 정책의 홍보에 치우치고 있어 객관적인 지식을 얻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의 통일교육을 보완해 주고 강화해 줄 수 있는 사회교육과의 연계성 또한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교육원 수련 활동을 강화하고,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교원의 통일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할 것이라고 하였다.<sup>57)</sup> 모쪼록 교육부의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사회교육 기관에서의 통일교육 기능 강화 그리고 통일 유관 단체 및 기관들과 학교와의 연계 체계가 확보됨으로써, 청소년 통일교육을 내실화를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V. 결 론

지난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근본적으로 반공교육이었다. 해방 이후의 혼란상과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지도 모른다. 본래 통일교육은 남북문제나 통일국가 및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관하여 국민 각자가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사실에 입각한 지식과 균형있는 사고 및 논의 능력을 구비토

57) 교육부, 교육월보, 통권 122호, 1992.2월호.

록 도우며, 궁극적으로는 개인들의 이와 같은 지식, 사고 및 논의 능력의 신장이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공감의식으로 확산되어서 민족의 전체적인 통일성취 능력과 통일 이후의 국민적 삶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그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sup>5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통일교육은 냉전시대의 분단교육 형태를 극복하지 못한 체 폐쇄적이고 수세적인 안보논리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둬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관 및 확고한 통일의지 나아가 민족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평화와 화해시대에서의 새로운 통일교육은 불신과 대립의 냉전구조 속에서 반세기를 살아 온 남북한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마음 속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생동감 있고 탄력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새로이 도래할 통일국가에서 살게 될 모든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에 접근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개해야 할 새로운 통일교육은 ①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 ② 민족공동체

윤리의식을 형성하는 교육 ③ 통일국가의 미래 상에 대한 확신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 ④ 적극적인 평화교육 ⑤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육 ⑥ 민주시민적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통일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론의 체계',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삶의 훈련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만들어 가야만 하는 지고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통일교육은 통일을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단순한 당위적 과제로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과 현실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연관된 수많은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통일국가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책임감 있고 열린 의식을 지닌 주체적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을 육성하는 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고시홍(1986), 제주도 초중고 교원의 통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그리스도교철학연구소 편(1991), 현대사회와 평화, 서울:서광사.  
김동범(1987), 고등학교 반공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복희(1988), 한국 학생의 국가의식에 관한 기초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만(1992.2), "몰타도에서 한반도 해빙기는 오는가", 북한, 북한연구소.  
김신일(1991.1), "통일로 가는 교육의 방향", 새교육, 한국교육신문사.  
김언주(1990), "통일전망과 대학교육의 중요

58) 김태완, 문용린(1991.11),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시안)", 미간행, p.7.

- 성”, 교육발전논총 제20호, 충남대 교육발전연구소.
- 김제만(1988), 통일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림(1989), “민족공동체와 통일문제”, 민족공동체와 통일문제, 국토통일원.
- 김태완·문용린(1991.11),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시안)”, 미간행.
- 노병철(1990), “한국 청소년 가치관 조사 종합 분석자료”, 도덕국민윤리과교육, 한국도덕국민윤리과교육학회.
- 문교부(1989), 통일-안보교육 지침서.
- 문화방송(1991), 91 MBC 청소년백서.
- 박종화(1991.1), “통일지향의 대학교육”,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1989.10), 한국인의 이념성향에 관한 조사연구.
- 서울특별시 초중등교과교육연구회(1991.12), 남북한 교육내용 비교분석.
- 성선정(1990), “통일지향의 민족교육 모색”, 사학 봄호.
- 신순철(1990), 통일에 대한 인식태도와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병준(1991.11), “국제환경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교육월보, 교육부.
- 유인택(1991), “최근의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한 관계”, 국책연구 여름호, 민주자유당 국책연구원.
- 이규래(1991),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 한결 제20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 이병용(1991.9~10),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비책”, 민족통일, 민족통일촉진회.
- 이상수(1983), 청소년기의 통일안보교육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덕(1990), “민족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의 과제”, 교육학연구 제28호, 한국교육학회.
- 이종명(1989),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모(1985), 청소년의 통일의식 조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정환(1991.12), “냉전에서 평화질서로”,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 정석홍(1990.11), “통일에 대비한 교육체제의 모색”, 수도교육,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차우규(1990), 중고등학생들의 윤리관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화(1989), “민족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전개방향”, 교원교육 제5권 제1호, 한국교원대학교.
- 추병완(1992.3), “민족공동체 윤리-도덕의 실천과제”, 북한, 북한연구소.
- 추병완(1991.9), “민족공동체 윤리의 정립”,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 추병완(1991.12), “윤리적 삶의 상실”,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 추병완(1988.3), “이념교육 목표로서의 비판적 사고”,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1988),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 한국일보, 1992.3.2일자.
- 허만(1989 가을호), “한국의 통일 가능성과 통

- 합민족주의 창조”, 국책연구, 민주정의당  
국책연구소.
- 홍성욱(1985), *고등학생의 통일안보 의식구조  
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황성모(1991, 3~4), “통일한국의 문화 전망”,

- 민족통일, 민족통일촉진회.
- Messner, J.(1959), *Social Ethics*, St.Louis : B.  
Herder Book Co..
- Sonnenschein, F.M.(April/May 1988),  
'Counting Prejudiced Beliefs and  
Behaviors', *Social Education*.

## A Thesis on the New Developmental Directions of the Unification-Education for Adolescence

Beong-Wan, Chu.\*

The unification-education for adolescence is a real concern of our age. Considering the unification-education as a method of Korean unification, I tried to find a rational, systematic characteristics and urgent tasks of new unification-education. Of course, there are different ways in which educators have attempted to describe the directions of the unification-education. But earlier approaches to the unification-education don't reflect the dynamic environment as it is. In addition, the unification-education in school put emphasis on the blind, critical education against North-Korea as a clear adversary rather than a national community. So, it was a security-education and had a closed views on North-Korea. Therefore, the unification-education in New age has to take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 complicated traits between South and North. Simultaneously, the unification-education should aim at activating th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nstituting the unification culture which can prevent the cultural la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thesis, new developmental directions of the unification-education for adolescence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ew unification-education should form a right views on Korean unification.

Second, the new unification-education should form a ethical consciousness as a national community.

Third, the new unification-education should grow a conviction and self-esteem on the future of unification nation-building.

Fourth, the unification-education should try to develope actively for peace consciousness.

Fifth, the unification-education should reduce the various prejudices and stereotypes.

Sixth, the unification-education should develope the democratic citizenship which is indispensable for democratical political community and is needed for decision-making for Korean unification.

---

\* National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